

온라인상 독자들의 번역 비평

김 순 미
(숙명여대)

1. 서문

번역학 연구 초기에 학계는 원문에 대한 충실성이나 등가성 등 언어적 측면에 주로 관심을 기울인 반면 목표어권 독자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목표어권 독자들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요구, 기대사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스키포스(Skopos) 이론가들이 번역물은 발주자나 독자들의 텍스트 사용 목적에 맞추어 달라진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기술 번역학(descriptive studies) 이론가들이 번역을 원문과의 관계에서 파악하지 않고 목표어권의 역사, 정치, 문화적 문맥 내에서 독자적인 텍스트로 분석하면서 부터였다. 이후에도 목표어나 독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제는 지금까지와 다른 측면에서 독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것은 독자의 배경과 요구를 ‘수용’하는 측면이 아니라 독자들의 직접적인 ‘참여’의 측면이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급속하게 확장하면서 번역 뿐 아니라 출판계 전반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는 독자들이 단순 수용자로서 수동적인 역할에 만족하지 않

고 직접 과정에 참여하게 된 현상이다. 현대의 독자들은 텍스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데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댓글이나 서평,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표현하게 되었고 텍스트의 품질을 적극적으로 판단, 비평하고 스스로 번역¹⁾이나 출간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번역계에서 독자 역할의 확대는 이보다 방대한 픽션 연구, 문학비평, 관객(청중)에 대한 연구 등의 틀 안에서 ‘독자의 부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Chan 2010: 141). 이제 독자들은 더 이상 출판사나 정책 연구가, 학자들이 주도하는 출판계의 변방에 위치하는 문외한이 아니며 자신들의 의견과 판단을 폭넓게 나누고 전파하는 문학·번역 비평가, 번역가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최근 번역계에서 독자들의 부상이 눈에 띄는 근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원문을 직접 읽고 스스로 분석,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독자층의 증가이다. 외국어 구사 능력과 문화적 소양의 향상으로 독자들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작품을 감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둘째는 수용의 측면으로 빠른 문화교류와 전파로 인해 과거에는 소수의 엘리트나 전문가들만이 누렸거나 그들을 통해서만 전파되던 외래문화가 이제는 일반인들에게 급속도로 직접 유입되고 있다(김순미 2011: 41). 셋째는 전파의 측면으로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남과 공유하게 된 사회적 분위기이다. “신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독자들은 거침없이 자신의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전자 통신 미디어 시대를 맞아 번역작의 독자들은 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고 번역을 담당하는 제도권은 예전과 같이 번역물에 대해 전권을 휘두를 수 없게 되었다(Chan 2010: 133).”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번역을 할 때 목표 독자층을 염두에 둔 번역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독자의 비평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번역과 번역가의 번역이 비교되고 경쟁²⁾을 할 수

-
- 1) 팬번역을 의미한다. 팬 번역이란 애니메이션, 만화, 비디오 게임 등의 팬들이 팬덤(fandom) 즉, 팬들의 집합체 또는 공동의 이해를 가진 팬들이 모여 구성한 하위문화(subculture)를 의미한다(이상빈 2011: 119).
 - 2)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자들의 번역이 출판사에서 발행된 공식 번역본과 경쟁을 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니지만 온라인상에서 독자들이 번역한 텍스트와 전문 번역가의 텍스트가 함께 비교, 분석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도 있는 현실이 도래했다. 번역가, 출판사, 번역학계 모두가 독자들의 거침없는 의견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독자들의 역할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내 번역학계에 서는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전문 비평가가 아닌 일반 독자들까지 연구 대상에 포함한 경우는 2006년 발표된 이상원의 저서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 평가 규범 연구』가 가장 방대하다 할 수 있는데 그의 연구는 온라인 뿐 아니라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독자들의 출판번역에 대한 비평연구를 하고 있다. 한편, 독자 번역의 경우는 2010년 이루어진 김순영, 정희정의 공동연구 ‘인터넷 기반 비전문가 자막번역(Fansub)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고찰 연구’가 인터넷과 통신의 시대에 독자들의 적극적인 번역 참여와 역할 확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상원의 ‘팬들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어 있는 정도이다.

이렇게 일반 독자들의 참여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이유는 독자들의 의견, 비평이나 문제제기, 더 나아가 번역 행위는 주로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발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독자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자의적 문화 현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번역이 행해지는 일선에서 일어나는 이같은 움직임은 매우 역동적일 뿐 아니라 독자의 지위와 역할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학자들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 전현주는 “일반 독자들의 비평은 전문 비평가들의 비평 행위에 비하면 수적인 우세와 실시간 반응 등으로 무장하여 특히 온라인의 제도적인 장치(주요 온라인 서점의 독자서평 등의 고정 콘텐츠를)를 통하여 엄청난 호소력과 대중성을 지닌 여론을 주도하는 막강한 집단으로 성장한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2008: 223)”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점점 증가하는 ‘번역에 대한 관심과 지적 역량 있는 독자층’에 학계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번역 일선과의 괴리감, 혹은 이론과 실제 간의 간극은 점점 벌어질 수 있다. 『해리포터』나 『다빈치 코드』, 『반지의 제왕』, 그리고 최근의 『스티브 잡스』 등 베스트셀러들을 둘러싼 독자들의 오역 논란과 출판사 측의 시정을 계기로 본 논문에서는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출판의 두 영역, 즉 비평과 번역 중 비평의 영역을 중심으로 독자들의 역할과 적극적인 참여 현상을 조사하고 독자 비평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며 향후 독자 비평이 가야할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본론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본고의 중요 연구 대상인 ‘번역에 대한 관심과 역량 있는 독자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전현주에 의하면 “번역비평의 주체는 비평가의 전문성에 따라 ‘전문비평가’와 ‘독자’로 나뉘며 ‘독자’는 다시 ‘전문독자’와 ‘일반독자’로 나뉜다. 일반독자는 ST와 TT의 비교분석을 행하는 대신 주로 TT 중심으로 작품을 읽은 후 공감하거나 반감을 가진 부분을 중심으로 ‘회상적(retrospective)인 비평’을 하는 독자들이며, 전문독자는 전문비평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ST와 TT를 비교분석 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독자들이다. 이들은 TT 중심의 온라인 서점 ‘서평(book review)’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는 면에서 전문비평가와 구분된다. 이에 반해 전문비평가는 92% 정도가 대학교수이고 나머지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역 비평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비평 문화를 선도하는 지표가 된다(2008: 222)”고 한다. 이처럼 본 때 본 논문의 독자 범주는 전현주가 제시한 ‘전문 비평가와 구별되는 독자층’이라는 범주와 일치한다. 즉, 본고의 ‘독자’는 대학교수와 극소수의 전문가 등 논문이나 연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지면으로 밝힐 수 있는 학자들과 교정을 통해 번역가의 작품을 수정하는 출판계의 편집자들을 제외한 전문독자와 일반독자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독자라는 집단의 규정에 있어서는 전현주의 구분과 본 논문이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독자들의 수준과 성격에 있어서는 전현주의 정의와 차이점이 있다. 본고는 전문독자의 경우 수준이 점점 높아져 전문비평가들처럼 ST와 TT를 같이 분석하는 경우도 많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으며 일반독자들의 경우도 ST와 TT를 함께 분석하지는 않아도 다른 독자들의 번역 비평이나 번역문을 보며 번역의 ‘질’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의 독자 비평 분석 또한 전문독자나 일반독자를 막론하고 단순한 회상적인 비평이 아니라 번역문 자체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제시한 것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스티브 잡스』에 대한 독자 비평처럼 블로그와 페이스북, 온라인 서평 등을 통해 일게 된 독자 토론에 조명을 맞추고 있다. 이제 독자들의 번역 비평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학계의 번역 비평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알아보면서 독자 비평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번역 비평의 이론적 배경

2.1 학계의 번역 비평

번역비평의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원문 대조 없이 번역작이 모국어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쓰였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히 문화적 우월성을 가진 서구에서는 번역하지 않은 듯 원문처럼 읽히는 번역 방법을 강조해, “번역가가 자신의 모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제대로 된 글쓰기를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원문 이해가 뛰어나도 그의 번역은 형편없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번역가의 목표어 구사능력 부족은 작품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Guttinger 1963: 219, Reiss 2000: 11 재인용)” 또는 “번역의 목표는 독자에게 모국어로 쓰인 가독성이 높은 텍스트를 안겨주는 것이지 초급의 학생들이 하듯이 영어투(Anglicism), 라틴어투(Latinism)의 문장이나 분사구문을 허접하게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Hans Erich Nossack 1965: 12, Reiss 2000: 11 재인용)” 같은 ‘가독성’ 중심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자연스런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번역 과정과 비평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지만 초기 번역 비평의 한계는 원문과의 대조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문학 번역가 랜더스(Landers)는 번역가들이 처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묘사한다. “문학 번역가들은 투명한 존재 같아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평가조차도 번역가의 노력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이 장황한 말을 쏟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평가자들은 마치 번역가의 노력 없이 원래 영어로 된 텍스트가 자신들 앞에 제시된 것처럼 행동한다. 출발어(source language: SL)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해야 할 책임이 없는 비평가들은 텍스트를 영어로 쓰인 일반 원문 텍스트처럼 다룬다(2001: 23).” 뉴마크(Newmark) 또한 “많은 번역 평가자들은 원작이나 외국어를 알지 못한 채 번역을 자연스러움, 읽기 편함, 가독성, 번역가의 개입 자세 등과 같은 대부분 잘못된 기준에 의거해 번역문을 평가한다(1998: 185)”고 하였다. 한국의 번역 비평은 서구의 번역 비평과 달리 원문의 지위를 낮게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번역비평에도 “비체계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마추어적 번역 비평은 물론 번역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언급이나 논의도 없이 모국어로 씌어진 원작처

럼 번역작품을 다룬 번역 비평 텍스트가 허다하다(전현주 2008: 217).” 그러므로 장소에 관계없이 번역 비평의 가장 전통적인 방법, 즉 ‘원문 대조 없이 이루어지던 비평’은 그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현실에서 라이스(Reiss)는 “비평의 기본은 원작과 대조하지 않는 비평을 하지 않는 것(2000: 7)” 이라고 규정하였다.

원문과 대조를 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해진 번역 비평조차 명백한 기준 없이 행해지는 가치 판단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번역 비평의 문제였다. 더 나아가 그런 비평들이 역자 서문이나 주석, 다른 번역가들의 작품에 대한 에세이, 번역 이론과 실제 그리고 평가 등에 대한 학자들의 논평 등 객관적 평가의 틀을 갖추지 않은 형식을 통해 발표되었다는 것도 번역 평가가 객관성이 없이 이루어 졌다는 증거였다(Maier 1998: 206). 이로 인해 몇 마디 수식으로 번역물을 평가하고 몇 군데의 오역을 기준으로 번역물의 질을 평가하는 관행이 이어졌다. 이같은 번역 비평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평의 틀을 잡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선 학자들은 언어학적 평가 방식과 다각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고 철저한 분석과 기술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양한 기준에 의해 원문과 번역문의 대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번역 평가 시스템이 제시되었다. 언어학적 기준에 의거해 원문 대조(comparative) 비평을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가장 방대하고 포괄적인 연구는 문학 번역작품에 대한 연구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이다. 연구팀이 제안하는 번역 비평은 충실성(faithfulness)과 가독성(readability) 두 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충실성과 가독성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충실성: 번역문이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번역했는가를 판단하는 영역으로, 단어·구절·문장 등에서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번역의 빈도나 정도를 판별한다.

가독성: 번역문의 우리말 구사 수준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대개 문장 차원에서 어색하거나 생경하거나 비문인 정도가 어떠한지를 판별한다. 다만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낯선 역어나 구문을 선택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역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영미문학연구회 2005: 21)

다시 말해 원문의 단어나 구절, 문장의 원의와 동떨어진 번역이나 대강의 의미는 전달되나 적절하지 못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정확한 의미 전달에는 실패한 경우 '충실하지 못한 번역'이라고 보게 되고 도착지인 한국의 언어와 문화로 변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즉, 비문, 오문, 생경한 번역투, 문화변환의 오류, 시대착오 등의 경우를 '가독성이 떨어지는 번역'이라고 보는 것이다(22). 충실성과 가독성 이외의 평가 기준은 특별한 이유 없이 문장이나 문단 등을 누락이나 첨가한 경우가 있는지, 문화적 차이로 우리나라 독자에게 추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표기법과 단락 구분이 정확한지, 번역자가 원문을 임의로 축약, 첨가, 부연하는 등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변용한 부분이 많았는지 등이다(23). 이처럼 통합된 언어적 기준을 가지고 다수의 번역작을 비교 분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업적이라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원문 대조 평가 방법은 충실성에 지나치게 많은 중점을 둔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뒤에서 다른 평가 이론들도 간략하게 소개 하겠지만 원문비교 평가방법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이유는 원문을 지나치게 높은 위치에 놓는다는 분명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이 번역 평가의 기본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원문 대조의 방법 연구 이후 등장한 것은 목표 언어권의 맥락 안에서 번역물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폴리시스템(polysystem) 이론가들이었다. 그 중 투어리(Toury)는 원문과 비교하는 방법도 번역 비평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점을 인정하지만 그 방법은 단순한 오류의 나열과 원문에 대한 지나친 숭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1978: 26, Maier: 208 재인용). 이들 학자들은 원문과의 대조가 아니라 목표어권 독자와 문화 내에서 독자적인 텍스트로 한 번역물을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텍스트는 각각 그것이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어휘, 형식, 구성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문과의 대조가 아니라 텍스트 타입별로 각각 비평의 기준이 달라져야 함을 강조한 기능주의 학자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라이스는 문학 텍스트, 정보전달 텍스트, 호소적 텍스트는 각 텍스트 타입의 기능에 따라 평가가 달라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문학 번역은 문학작품에서 중요한 문화적 배경이 담긴 표현, 수사적 표현, 묘사, 문체 등의 번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정보전달 중심의 텍스트의 경우 객관적인 정보와 내용 전달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후 등장한 탈식민주주의 번역 비평가들은 문화간 불평등이나 권력 관계 등이 제대로 인식, 규정되지 않은 텍스트의 경우 번역가들이 이를 다른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재조명 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상대 문화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가독성이 높은 번역문보다는 의도적으로 낯설게, 번역한 듯 번역을 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음을 강조하며 각각의 번역물은 그것이 탄생한 역사, 정치, 사회적 틀 안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첸(Chan)은 다양한 번역 평가 이론을 종합하여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은 표로 작성했다.

【표 1】 세 가지 번역 비평 이론 비교

	비평에서 판 단의 기준	목표언어 텍 스트의 위상	원문과 차이 를 보이는 이유	패러다임
언어적(linguistic) 측면	언어 사용	낮음	번역가의 실수	언어학
문학 비평적 (literary critical) 측면	문학적 이해 와 소양	중간	문학적 이해나 판단 착오	문학 비평
탈구조주의적 (post structuralist) 측면	이데올로기	높음	의도적 조작	문화 연구/ 이론

(2010: 167)

번역 이론의 틀에서 보면 언어학적 원문대조 방식을 통해 충실성과 가독성의 면에서 평가하는 방법과 번역가의 문학적 이해와 소양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법, 특정 사회, 문화, 역사라는 큰 틀 안에서 번역을 조명하는 방법 등 세 가지 비평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언어적 측면의 비교를 하는 것은 원문 중심의 방법으로 번역가의 실수, 오역, 원문 이해 부족을 중심으로 비평을 하게 되므로 번역문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것이며, 문학 비평적 측면의 비교를 하는 것은 번역문 자체의 문체나 문학적 소양을 비평하는 방법이므로 원문 중심 비평 방법 보다는 번역문의 위상을 높게 본다. 이에 반해 탈구조주의적 비평은 목표어권 문화 중심의 방법으로 원문이 조작한 이데올로기나 사상, 역사적 사실 등을 번역문에서 재구성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번역가나 번역문의 위상을 훨씬 높게 보는 비평방법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기술적 이론 비평가들이나 탈구조주의적 이론가들은 원문과 단순 비교 방법을 택하지 않지만 이 경우는 전통적인 번역 비평 방법, 즉 원문과의 비교 없이 번역문만 읽으며 가독성면에서 비평을 하는 방법과는 달리 번역문 자체의 사회, 역사적 배경 안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준 때문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각 이론별로 어떤 경우는 거의 상반되는 차이점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 방법을 위주로 평가하기보다는 텍스트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2 출판사의 번역 비평

전문적 비평가 뿐 아니라 번역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은 번역 비평을 담당할 수 있다. 뉴마크가 제시한 번역 비평이 가능한 측은 a)번역 회사가 고용한 교정, 교열자, b)번역 회사 내의 번역 담당자 c)발주자 d)전문적 번역 비평가나 교사, e)번역 독자 등이다(1998: 185). 발주자나 출판사, 번역회사 등 다양한 관련 기관들은 각각 번역 품질 재고를 위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중 특히 출판사나 번역 발주자는 번역 품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첫째, 그들은 스스로 번역 비평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교정, 교열을 통해 번역 품질을 제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둘째, 출판사는 시간, 보수 등 번역가들의 작업 환경을 결정한다. 셋째, 출판사는 공동번역, 대리번역 등 번역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주체이다. 즉 출판사나 발주자는 일차적인 비평가 교열을 통해 번역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번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추후에 더 큰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빈치 코드』 오역사례를 연구한 김영신은 번역 비평은 번역가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출판사 측에 대한 비평이기도 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오역이 많은 것은 해당 출판사측에서 빠른 시간 내에 번역서를 시장에 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적당한 번역사의 선별, 초벌 원고에 대한 꼼꼼한 교정교열이 상당 부분 미진하게 이루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번역자 1인에 대해 결과 위주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번역자의 작업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환경개선에 대한 출판사의 고려가 뒤따라야 함을 제안한다(2009: 15)”고 하였다. 부실한 번역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출판사 측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독자들이 번역 비평을 하면서 문제 삼은 것도 이 부분이다. 독자 비평의 대상은 번역가일 뿐 아니라 무책임한 출판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출판사 자체에서도 번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전에 번역의 기준을 마련해 놓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출판사에서 공식적인 번역 기준이나 비평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다음은 그 중 하나인 예스 24 인터넷 서점에 오른 윤지관, 전승희 공역 『오만과 편견』의 민음사 출판사 리뷰(<http://www.yes24.com/24/Goods/402246?Acode=101>)로서 이를 기반으로 출판사에서 역점을 두는 문학번역의 기준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많은 번역서들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오역이나 부정확한 번역을 거의 모두 없앴고, 무엇보다 원작을 그대로 충실하게 재현해 내려고 했다. 한 문장, 한 문장 빼놓지 않고 꼼꼼한 번역과 원문 대조 과정을 거쳐 오역이나 내용 침삭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원문 중에 표시된 강조나 인용문의 표기를 철저히 따라서 소화시켰다.

둘째, 작가 제인 오스틴의 문체적인 특징이나 기법을 최대한 살렸다. 제인 오스틴은 반어나 풍자 등의 수법에 탁월했으며, ‘묘출화법’을 즐겨 쓰는데, 바로 그것이 이 작품이 묘미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투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다.

셋째, 당시 시대상에 맞도록 적절한 표현을 찾아 번역하려고 노력했다. 또 작품의 배경인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영국의 농촌 생활이나 풍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내실 있는 번역을 하려고 애썼다. 가령 이 작품에는 식사 약속이나 식사 장면이 무수히 나오는데, 당시 농촌 신사 계급 집안에서는 늦은 아침을 먹고, 오후 너덧 시경에 디너(정찬)를 하고, 저녁 늦게 간단한 저녁식사(Supper)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번역하였다. (기존의 번역본에서는 대개 ‘디너’를 ‘저녁 식사’ 혹은 ‘만찬’으로 번역하여 내용상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또 morning은 아침 식사와 정찬 사이의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낮 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아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장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번역하였다.

넷째, 원작의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도 빠뜨리지 않고 번역하되,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읽힐 수 있도록 했다. (밑줄은 필자의 것임)

첫 번째 경우는 원문을 빠지지 않고 충실히 번역했다는 강조를 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작가의 문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점, 세 번째는 문화적 차이를 메워 주기 위해서 노력한 점 네 번째는 가독성을 살려 번역한 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충실성과 가독성,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전달 등에 역점을 둔 것을 볼 때 비교 비평이론가들이 제시한 틀과 출판사에서 제시하는 비평 기준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번역 지침을 내리고 철저한 교정, 교열을 거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아야 출판사도 오역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2.3 독자의 번역 비평

기존의 일반 독자들은 모국어로 쓰인 원문을 읽듯 번역작을 읽고 감상했다³⁾. 그리고 그 비평의 내용은 번역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책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즉 번역가가 번역한 것을 직접 원작가가 쓴 것으로 간주한 채 자신의 느낌, 문체의 화려함이나 간결함 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원문을 접할 기회나 이해의 능력이 없을 때는 이 방법만이 가능했다. 그러나 요즘 독자들의 번역비평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비교하며 오역을 찾아내는 방식 즉, ‘일일이 실수나 문제점을 찾아내 열거하는’ 독자들의 등장이다. 이들의 평가 방법은 원문과 대조를 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경우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즉 외국어에 능통하고 문화적

3) 예스24 인터넷 서점 민음사의 『오만과 편견』(<http://blog.yes24.com/document/4454590>)에 대한 독자 리뷰의 예이다.

“초등학교 6학년때 ‘오만과 편견’을 읽었다. 사실 축약된 내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세한 내용이 기억나지도 않고 하여 다시 한 번 읽어보게 된 ‘오만과 편견’. 읽고 나니 영화로도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제목을 두근두근 연애소설이라고 적었지만, 단순한 연애소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오만과 편견이 참으로 많고 그로 인해 어긋나는 인간관계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편견을 지녀왔는지, 어떤 오만함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다시 연애 때의 두근거림이 떠오르기도 했다.”

배경에 익숙해야 한다는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독자들의 능력과 외국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독자들에게 의해 제기된 번역비평을 보면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며 분석을 한 것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이상원(2006)의 분석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원문과 비교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단순한 작품 감상에서 벗어나 번역문의 문체나 구성, 어휘, 더 나아가서는 번역 윤리와 정책에 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독자 비평의 형태도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 분석하는 비평과 원문 비교 없이도 번역문의 목표어 구성이나 구사능력을 지적하는 비평, 그리고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번역작을 감상하며 감흥과 반감을 나타내는 회상적 비평 등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독자들이 지적하는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충실성에 해당하는 원천어 이해 부족, 원천어의 배경지식 부족과 가독성에 해당하는 목표어 구성과 구사능력 부족에 대한 지적 등이다. 또한 오역을 지적하면 그 뒤에 새로운 번역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비평하는 독자들의 사례를 실었다.

첫 번째 예는 대만 독자 비평가의 『위대한 개츠비』 비평의 예로 ‘원천어 문맥과 어휘 실력의 부족’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a) 피제랄드의 어휘 이해가 부족했다. 예를 들어 ‘외적인(external)’을 ‘영원의(eternal)’로 번역한 것이나 ‘맹정신의(sober)’를 ‘흐느끼는(sobbing)’으로 번역한 것을 들 수 있다.
 - b) 과다번역을 했다. ‘키스했다’를 ‘머리를 낮추어 키스했다’로 번역한 것을 들 수 있다.
 - c) 문맥 파악을 못했다. 예를 들어 ‘약간 피곤한(slightly worn)’의 경우 풍자적인 함축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worn’의 의미 중 옷을 입는 것과 연관지어 ‘허름하게 차려입은(shabbily dressed)’로 번역하였다.
- (Qui 1981: 14, Chan 2010: 167 재인용)

두 번째는 이상원 연구의 예로 황금가지 출판사의 홈페이지에 오른 코난도일의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무명 독자의 번역 지적이다. 번역가의 ‘문화적 배경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역 지적사례이다.

3장에서 “그리고 재 런던 아일랜드인 클럽에서 매주 네 쿼터씩 센터로 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라고 나온 부분 말입니다. 원문이 “and play center three-quarter every Saturday for the London Irish”인데요 center three-quarter는 럭비의 포지션 명입니다. 그러므로 저 부분은 “세 쿼터씩 센터로 뛰는 사람”이 아니라 “center three-quarter로 뛰는 사람”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2006: 132)

세 번째도 이상원 연구의 예로 황금가지 출판사의 홈페이지에 오른 데이스 루헤인의 『미스틱 리버』에 대한 무명 독자의 의견으로 번역가의 ‘목표어 문장 구성 능력’을 지적하고 있다.

2권 220쪽에 ‘손은 그의 눈에서 공포와 자기혐오가 가득 담겨져 있었다.’ 이 말이 어법에 안 맞아요. 손이 상대의 눈에서 그걸 느낀 걸 적은 건데 말이 맞으려면 자기혐오가 가득 담겨져 있는걸 알 수 있었다. 뭐 이 정도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2006: 118)

이같은 적극적인 독자들의 참여는 번역품질에 관심을 모아 질적 향상에 기여도 하지만 문제도 안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원문 중심적 관점이 비판을 받으며 번역학자들의 이론과 논의에서 오역분석 비평은 힘을 잃었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 독자 비평가의 부상과 함께 오역잡기식 비평방법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중 언어 구사 독자들의 비평은 수백 쪽 가량의 번역문을 원문과 꼼꼼하게 비교하며 읽고 번역가가 저지른 실수를 찾아내는 방법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독자 스스로 번역 교수자의 입장이 되어 번역가와 번역물을 평가, 판단하는 방법이라 비평 절차 뿐 아니라 번역가를 자신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는 태도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오역잡기식 비평에 대해 책은 “이같은 비평은 비평가가 독자로서 뿐 아니라 분석 텍스트의 번역가로서도 자신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167)”고 주장했다. 독자들이 번역가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본인들이 번역가로서도 전문 번역가보다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번역가들이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종합하여 볼 때 언어적, 인문학적 소양이 향상된 지식층 독자들의 부상으로 출판사들도 독자들의 비평 혹은 비난까지도 수용해야 하는

시대가 왔으나 독자들의 번역 비평은 원문과 번역문의 철저한 언어적, 문화적 분석 그리고 대안 제시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신성시하는 동시에 번역가를 격하시킨다는 단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구체적인 독자 비평 현상을 중심으로 실제 독자들의 번역 비평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3. 독자 번역 비평 현상과 분석

3.1 독자 번역 비평 현상

최근에 독자들에게 의해 야기된 번역 관련 문제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음사에서 출간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공식 전기의 오역 논란이다. 메가 베스트셀러의 경우 세상의 주목을 끌고 유명세를 치르게 되지만 이 책의 경우 스티브 잡스의 갑작스런 사망과 맞물려 더 큰 화제가 되었다. 경향신문에 보도에 따르면 민음사는 45년 출판 역사상 최초로 발간 전 온라인 서점 1만 5천부 예약 판매량과 10만부 초판 발행을 기록했고, 에스 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각종 온라인 서점을 통해 원서로 책을 접하려는 사람들의 예약 판매는 2,500부 정도로 추정되었다⁴⁾. 예약 판매량의 경우 원서가 한국어판 1만 5천부의 1/6에 달하는 것만 보아도 원서를 직접 읽으려는 의욕과 능력이 있는 독자들의 수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번역작과 함께 원서를 접한 많은 번역가와 일반 독자들 사이에서 오역 논란이 불거졌고 급기야는 이 문제가 번역계의 전반적인 부실 문제로 비화해 언론에 연일 보도 되었다. 실제로 번역논란이 일자 민음사에서는 사과문을 내고 앞으로 발간하는 번역문에 적극적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번역문이 원문과 다른 이유 중 많은 부분은 미국 출판사에서 제공받아 번역에 쓰인 국제본과 미국 내 발행본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명도 했다. 안진환 번역가 역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며 독자들의 의견을 감사히 수용할 의사를 보였다⁵⁾. 한편 이 논란은 제법 큰 사회적

4) 전기 ‘스티브 잡스’ 출간... 예약 판매 1만5000부, 초판만 10만부 인쇄 ‘들썉’ 경향신문 인터넷 판 2011년 10월 23일자(www.news.khan.co.kr)

5) 민음사와 안진환 번역가의 발표문은 부록에 실었다.

과장을 가져와 이후로도 관심 있는 독자들은 각자 독자 비평가에 동의를 하거나 번역가의 입장을 옹호하며 온라인상에서 열띤 논쟁을 벌였다⁶⁾.

사실 이번 논란은 하나의 개별적 사건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독자들의 거센 오역 비판과 문제제기 후 출판사나 번역가가 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특히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졌었다. 해리포터의 경우도 유명세를 타고 많은 오역 논란이 일자 문학수첩 출판사에서는 최인자 번역가와 편집 및 기획부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식 입장을 내놓았으며 그 후로도 출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독자들의 오역 비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 개정판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게 해리 포터의 중국어판을 접한 독자들의 오역 비평사례에 대한 채의 연구에 의하면 ‘배쓰로브(Bathrobe)의 해리포터 중국어판, 일어판과 베트남어판--인민문학 출판사의『해리포터』번역에서 발견한 끔찍한(disastrous) 오역’이라는 웹사이트에는 ‘Cjvlang’이라는 아이디의 웹마스터가 첫 세권에 대한 오역 사례를 정리해 올려놓았다. 첫 권에서 첫 55개의 오역이 발견되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되었다. 독자들이 ‘끔찍한’ 번역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다음 인용문에 잘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단어대 단어의 비교 이상의 전체적 문맥이해나 문화적 지식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논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a) 등장인물의 이미지나 성격 왜곡
- b) 줄거리를 손상
- c) 중요 정보를 누락
- d) 독자들의 감정 이입을 방해
- e) 독자들이 하여금 문맥과 관련 없는 상상을 하게 함
- f) 독자들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도록 함
- g) 타문화에 대한 오해 유발
- h) 전혀 의미 없는 문장을 만들(Chan 2010: 135 재구성)

중국판 해리포터 번역 비평의 경우에도 한국 독자들의 비평과 유사하게 번역문과 원문을 비교하며 주제별로 오역 지적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더 나은 번역 그리고 설명, 혹은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6) 이에 대한 신문 보도는 부록에 실었다.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 독자 비평의 수준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오역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텍스트는 메가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의 경우로 2004년 6월 첫 출간 이후 독자들의 번역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 책의 출판사인 베텔스만 코리아 출판사에서 마련한 사이트(www.davincicode.co.kr)에는 이미 2004년 7월부터 “번역이 아니라 해석”, “내용은 괜찮은데 번역이...”, “제대로 번역해서 리콜하라”는 독자들의 불만이 올라왔으며 연말엔 코리아헤럴드 부설 어학원 학생들이 일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 쪽 당 평균 2, 3곳의 오역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한다⁷⁾. 이에 대해 베텔스만 코리아는 소설 전문 번역가의 철저한 감수를 거쳐 초판 25쇄부터는 개역판을 발행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일러스트레이트를 곁들여 2005년 3월말 발간한 양장본은 아예 번역가를 교체해 새로운 번역본을 냈다⁸⁾. 그러나 이 번역본에도 오역 시비가 계속되었고 결국 판권이 다른 출판사로 넘어가 2008년 12월 새로운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독자들의 불만 제기와 이로 인한 출판사와 번역가들의 대응과 그 이후 계속되는 변화는 새로운 현상이지만 그 영향력은 무척 거세다. 다빈치 코드의 오역사례 연구를 한 김영신은 논문에서 “『다빈치 코드』는 우리나라 출판번역에 있어서 새로운 현상을 낳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독자들은 해당 출판사를 대상으로 오역에 대한 항의와 함께 번역서의 대대적인 리콜을 요구하고 나섰고, 출판사는 이에 대해 부분적인 오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번역서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이고 행동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즉, 과거에는 번역서의 오역문제가 학계에서 주로 이루어진 반면 『다빈치코드』의 경우 일반 독자들이 오역문제를 제기하며 리콜을 요구하고 나선 점, 해당 출판사로부터 부분적으로나마 오역의 인정을 이끌어 낸 점은 독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2009: 5)”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출판사가 독자들의 의견 때문에 오역을 인정하고 개정판을 내거나 새로운 번역본을 내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7) 중앙일보 인터넷 판 2005년 3월 6일자 ‘베스트셀러 추리소설 ‘다빈치 코드’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56710&ctg=17)

8) 한국일보 인터넷 판 2005년 3월 6일자 ‘오역 시비 ‘다빈치 코드’ 새 번역본 나온다’
(<http://news.hankooki.com/lpage/life/200503/h2005030620005923340.htm>)

현상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인민문학출판사(People's Literature Publishing)는 해리포터 번역에 대한 지속적인 독자들의 비평에 대해 초기에는 자신들의 『해리포터』가 수준 높은 전문 번역가들과 감수자들의 손을 거쳤기에 번역에 결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이를 반복하고 원작에 대한 충실성의 부족, 출간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 아동문학으로서 전반적인 번역 전략 부족 등에 대한 독자들의 거센 비난을 수렴하여 그 때까지 발간된 모든 번역작을 꼼꼼하게 수정하여 추후로 발간될 박스제작 판에서는 그간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작품을 내놓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Chan 2010: 137).

독자들의 항의나 문제제기는 출판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 특히 팬티지 소설처럼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해리포터』와 같이 독자들이 직접 번역을 해서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반지의 제왕』처럼 팬들이 여러 출판사의 판본을 비교해 보고 의견을 형성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면에서도 독자들은 중요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출판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꾸준히 번역을 수정하고 오탈자를 바로 잡은 개정판을 내놓게 된다. 이제 구체적 사례별로 독자 비평의 전반적인 과정과 내용을 분석해 보겠다.

3.2 독자 비평의 내용 분석

독자 비평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비평의 단계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점이다. 우선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읽으며 분석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독자가 번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리고 이것이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원문을 번역문과 대조한 다른 독자와 대조하지 못한 다양한 독자들이 첫 번째 독자의 비평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댓글 형식으로 올리거나 블로그 등을 통해 발표하며 열띤 토론을 하게 된다. 이같은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안진환 번역가의 『스티브 잡스』에 대해 이덕하 독자가 문제제기한 내용(<http://sf1856.egloos.com/3253898>) 중 일부와 『해리포터』에 대한 번역 비평을 우선 분석하고 그 이후 이에 대한 반박이나 동의하는 독자들의 의견을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해 보겠다.

이덕하는 지금까지 약 50권 가량의 번역본에 대한 비평을 해왔다고 하며

잡스 전기의 5장과 8장 부분에 대해 오역 부분을 정리한 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다. 그는 번역문을 앞에 원문을 뒤에 실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원문을 먼저 실고 번역문을 실었으며 마지막에 독자 비평가의 의견을 실었다. 비평 내용을 살펴보자면 많은 부분 어휘와 문맥이해 부족에 대한 비평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음 예문들로 예1)의 경우 첫 번째는 'order'가 이 문맥에서는 주문량이 아니라 '질서' 또는 '기강'의 의미인데 원문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disruptive'의 문맥상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밑줄은 문제제기 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필자의 것임)

예1) Isaacson(101쪽): Both Mike Scott and Mike Markula were intent on bringing some order to Apple and becam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Jobs's disruptive behavior.

안진환(171쪽): 스콧과 마쿨라는 애플 주문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념이 없었고, 잡스의 과격한 행동을 점점 더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덕하->영터리 번역이다. 여기서 "order"를 "주문량"이 아니라 "질서" 또는 "기강"이다.

"disruptive"는 "과격한"이 아니라 "기강을 어지럽히는"이라는 뜻이다. 스콧과 마쿨라는 회사의 기강이 잡히길 원했는데 잡스가 위계질서 등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뜻이다.

예2)의 경우는 두 가지 지적이 있는데 우선 'straightforward'라는 단어가 빠진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만들고 있는 컴퓨터가 혁신적인 것이 아니라 따분한 전통적 컴퓨터가 될 것으로 보고 초조해졌다는 것을 '상황이 더디게 돌아가는' 것으로 오역했다는 것이다.

예2) Isaacson(93쪽): Without the wizardry of Wozniak, who was still working quietly on the Apple II, the engineers began producing a straightforward computer with a conventional text display, unable to push the powerful microprocessor to do much exciting stuff. Jobs began to grow impatient with how boring it was turning out to be.

안진환(160쪽): 아직 애플 II의 개선 작업에 조용히 몰두하고 있던 천재

엔지니어워즈가 빠진 상태에서, 엔지니어들은 전통적인 텍스트 디스플레이를 갖춘 ()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이크로프로세서가 강력했음에도 기대만큼 흥미로운 기능을 구현하지는 못했다. 잡스는 더디게 돌아가는 상황에 점점 초조해졌다.

이덕하-->“straightforward”를 빼먹었다.

“더디게 돌아가는 상황에”는 엉터리 번역이다. “much exciting stuff”를 내놓지 못하고 따분한 전통적인 컴퓨터가 될 것이 뻔해 보였기 때문에 짜증을 냈다는 말이다.

예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많은 전문적 독자비평은 원문의 어휘와 문맥, 구성을 살리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된 이유와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내용 면에서는 ‘straightforward’를 빼먹었다고 하는 부분처럼 지나치게 원문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order’가 ‘주문’이 아니라 ‘기강’의 의미로 사용된 것처럼 ‘의미적’으로 적합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출판사나 번역가 측에서도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수정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가장 문제로 보이는 면은 비평의 예의와 방법의 측면이다. ‘엉터리 번역’이라고 계속 주장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등 주관적이고 우월한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비평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소라고 분석된다.

독자 비평이 단어나 문맥을 잘못 이해한 오역 비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번역의 영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문화적 이해 부족, 용어의 잘못된 사용, 부적절한 한국어 사용, 발음 기록의 문제 등을 지적하는 경우이다. 다음은 엔하위키(<http://mirror.enha.kr/wiki>) 사이트에 실린 글로 해리 포터 번역에 있어 다양한 측면에 있어 번역상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지적한 경우이다. 객관적인 틀을 모두 갖춘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문화적 배경, 발음, 원문 이해 부족 등으로 나누어 구분했다는 것은 독자 비평이 점점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 문제를 제기한 독자는 언어적 지식 뿐 아니라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도 수준이 높은 편이며 언어적 문화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뿐 아니라 대안 번역을 제시하는 것 등 많은 점에서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 저자가 밑줄 친 부분처럼 “김혜원씨는 제대로 된 번역가가 아니니까”, “혹시 검은색 푸딩으로 생각한 건 아니겠지”, “1ft 내외의 막대기를 지팡이라고 번역하긴 뭐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 법 한데” 등 우월감을 가지고 번역과 비평에 있어 자신은 옳고 번역가는 잘못되었다는 식의 태도와 문제제기 할 때의 기본적 예의를 지키지 않고 감정이 많이 실린 언어를 쏟아내는 단점은 계속적으로 눈에 띈다.

언어적 이해 부족

- 1권 14장에서 론이 해그리드가 노버트에게 빠져 있을 때 “녀석은 여의주를 잃어 버렸어.”라고 말하는 데 이것은 원문의 “He lost his marble.”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marble은 비격식적으로 판단 능력이나 제정신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marble을 구슬이라고 오해한 것.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한국어에 맞게 만든답시고 여의주라고 번역한 것이다.(…) 즉 제대로 번역하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군.”정도로 번역 할 수 있다. 이 대사가 론이 해그리드가 팔볼출 짓을 할 때 날린 대사라는 점과 해리에게 몰래 속삭였다는 점에서 볼 때 문맥적으로 이 대사가 해그리드를 까는 대사라는 것쯤은 제대로 된 번역가였다면 눈치챌어야 했다. 그야 김혜원씨는 제대로 된 번역가가 아니니까. 참고로 이 오역은 초판 33쇄에서 발견된거다. 차후에 수정되었으면 추가바람.

문화적 이해 부족

- 검은 푸딩 → 블랙 푸딩, 순대 : 블랙푸딩은 우리가 아는 달콤한 푸딩과는 거리가 먼 다른 음식이다. 블랙푸딩이란 돼지 피와 지방, 곡물을 돼지 내장에 채워 만든 소시지로 한국의 순대와 거의 같은 음식. 혹시 검은 색 푸딩으로 생각한 건 아니겠지

고유명사 번역

- 모우닝 머틀(Moaning Myrtle) : 해리 포터 시리즈의 유령들은 대개 별명으로 불린다. 목이 달랑달랑한 닉(Nearly-headless Nick), 피투성이 남작(Bloody Baron) 처럼. 그렇다면 moaning 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려서 ‘울보 머틀’ 혹은 ‘신음하는 머틀’이라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한국어 어휘력

- 요술지팡이 → 마법봉, 요술봉 등 : 지팡이는 말 그대로 지팡이로 쓸 만

큼 긴 staff를 일컫는 말이고 해리 포터 시리즈의 wand는 훨씬 짧다. 물론 이렇게 판타지 용어에 대한 적당한 번역명이 자리잡은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적어도 1ft 내외의 막대기를 지팡이라고 번역하긴 뭐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 법 한데 7편까지 계속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다.

고유명사 발음

- Hermione Granger : 헤르미온느 그레인저 → 허마이어나 그레인저
- Cedric Diggory : 케드릭 디고리 → 세드릭 디고리
- Gilderoy Lockhart : 질데로이 록허트 → 길데로이 록허트
- Seamus : 시무스 → 세이머스
- Lestrangle : 레스트랭 → 레스트레인지 또는 르스트랑쥬
- Fenrir Greyback : 펜리 그레이백 → 펜리르 그레이백 혹은 펜리어 그레이백
- Mundungus Fletcher : 문둥구스 플레처 → 먼던거스 플레처
- Parvati Patil : 패르파티 패틸 → 파르바티 파틸 혹은 빠르바띠 빠띠
- Gellert Grindelwald : 겔러트 그린델왈드 → 겔레르트 그린델발트

날카로운 지적과 번역 과정에 대한 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출판사나 번역가가 오역을 수정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며 앞으로 번역과 출간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독자 비평의 문제는 번역 분석이 어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영터리 번역’, ‘전문번역가 맞나’ 등 표현과 같이 비방과 조롱이 담긴 언어를 사용한 점, 또한 텍스트의 목적과 상황, 배경에 맞게 전체적인 구성이 잘 되었는지를 분석하지 못한 점, 번역가가 번역을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⁹⁾, 자신의 의견은 옳고 번

9) 전문가 비평에서는 각 번역본의 단점이나 실수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독자 비평가와 크게 차이난다. 다음은『영미 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의 일부분으로 단락 부분, 누락, 속어 비어의 전환, 우리말 표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번역본임을 제시하고 있다.

“김옥동·염경숙 역본은 정확성, 적합성, 적절성 등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번역본이다. 특히 우리말 표현이 매끄러운 편이며, 역자들 스스로 밝혔듯이 속어와 비어를 요즘 한국의 10대들이 쓰는 비어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그러다보니 지나치다고 여겨지는 대목도 군데군데 있지만, 이런 노력과 고심 자체는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237).”

“이 작품에서 단어와 구절, 문장 등 세목을 누락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역가의 번역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는 독자비평은 번역에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모두 하고 있다.

이제 독자 비평의 두 번째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자. 독자 비평은 주로 인터넷과 SNS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의 경우처럼 한 사람이 비평을 하면 이어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거나 대조하지 못한 다른 독자들의 반박이나 동의 표현이 댓글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스티브 잡스 논란을 분석한 결과 번역 비판자를 옹호하며 번역계의 오역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독자들이 대다수였으나 번역가의 번역을 옹호하거나 비판자의 비판을 지적하는 독자들도 제법 많았다. 독자 비평가를 지적하는 독자들의 주요 논점은 오역을 지적하는 태도와 방식에 대한 것과 내용에 관한 것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적 방식을 문제 삼은 독자들은 자신은 옳고 번역가는 무조건 틀리다고 보는 것과 감정이 섞인 발언을 하는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지나친 비난과 비아냥거림은 번역 비평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번역가의 번역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함께하는 독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덕하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 대해 2011년 10월 28일 'sunoshin'이라는 아이디로 올린 댓글이다. (밑줄은 필자의 것임)

하나하나 비교해보시며 이렇게 수고하신 글은 잘 읽었습니다.
단지 여러 사람이 지적하듯, 비평의 정도를 넘어 비난으로까지 보였다면
분명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강한 말투와 비아냥거림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공감을 잘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한편 내용에 관한 의견은 번역을 지적하는 경우 지나치게 축자역으로 흐르는 경향을 문제 삼고 있다. 2011년 10월 28일 '의문자'라는 아이디로 댓글을 올린 독자는 번역 비평에 대한 자신의 반박 의견을 올렸다. 큰 의미상 차이가 없는 부분까지 오역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다음 예는 원문, 번역문, 비평가

적은 편으로, 검토한 부분에서는 2군데 정도가 눈에 띄었다. 단락 구분 등의 편집도 원문에 비교적 충실한 편이다(238).”

이덕하의 의견, 그리고 반박하는 독자의 의견의 순서로 정리되었다. “did not hide”이므로 “뿔수룩한 머리칼과 늘어진 콧수염 뒤에 에너지를 숨기고 있다”는 표현은 틀리고 “콧수염으로도 생기 있는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고 해야 한다는 이덕하의 의견에 대해 ‘의문자’라는 아이디어의 독자는 결국 뿔수룩한 머리와 콧수염 뒤에 생기나 에너지가 있었다는 큰 맥락에서 볼 때 의미가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즉, 밑줄 친 부분처럼 자구 하나에 매달리는 원문대조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완고한 해석임을 말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2,3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단계: 번역본)

Isaacson(94쪽): With his shaggy hair and droopy moustache that did not hide the animation in his face, Atkinson had some of Woz’s ingenuity along with Jobs’s passion for awesome products.

안진환(161쪽): 뿔수룩한 머리칼과 축 늘어진 콧수염을 한 앳킨슨은 그런 외모 뒤에 에너지를 감추고 있었다. 그는 워즈의 천재성과 멋진 제품에 대한 잡스의 열정을 감비했다.

2단계: 첫 번째 독자 비평가)

이덕하 의견-->“did not hide”는 “감추고”가 아니다.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덕하 의견-->“the animation in his face”를 “에너지”라고 번역했다. “얼굴의 생기”다. 콧수염이 있었지만 생기 있는 얼굴이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3단계: 제3의 독자 의견)

‘의문자’의견-->이 부분은전 원문과 함께 보면서 충분히 역자가 전달하고자하는 의미는 잘 전달 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생기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에너지라는 단어가 오역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

.....다소 억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네요...

비판은 꼭 필요하지만 올려주신 비판부분은 역으로 비판받을 곳은 없나 생각하게 만드네요.

이덕하의 비평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견 제시를 한 번역가

노승영은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이덕하의 번역비판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부분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을 모두 다시 분석하여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그의 분석은 많은 부분 번역가의 번역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도 오역으로 판단한 부분을 지적했으며 다음 예와 같이 ‘convergence’를 ‘수렴’이 아니라 ‘영향’이라고 번역한 것을 오역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자신의 문화적 지식을 근거로 ‘영향’이라는 번역을 한 것의 적합성을 주장한 예도 있었다.

Isaacson(57쪽): ... John Markoff wrote in his study of the counterculture's convergence with the computer industry, *What the Dormouse Said*.

안진환(106쪽): 존 마코프는 반문화 운동이 컴퓨터 산업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저서 『동면쥐가 말한다』에서 이렇게 썼다.

이덕하 의견→“반문화 운동이 컴퓨터 산업에 미친 영향”이 아니라 “반문화와 컴퓨터 산업의 수렴”이다.

노승영 의견→『동면쥐가 말한다 *What the Dormouse Said*』의 부제가 ‘60년대 반문화 운동이 개인 컴퓨터 산업에 미친 영향 *How the Sixties Counterculture Shaped the Personal Computer Industry*’입니다.

노승영의 의견은 『동면쥐가 말한다 *What the Dormouse Said*』의 부제를 보면 반문화가 컴퓨터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convergence’를 직역하여 ‘수렴’이라고 제시한 지적보다 안진환 번역가의 ‘영향’이라는 번역이 더 문맥에 어울리는 번역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29개의 지적 사항 중에 자신이 동의 할 수 있는 것은 소수에 불과함을 말하면서 번역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덕하씨가 주장하는 오역) 29개 중에 오역으로 판단되는 것은 9개입니다. 논리적인 관계를 오해하게 만드는 중대한 오역은 두 개 정도인 듯합니다. 나머지는 해석의 여지를 다룰 만하거나, 납득할 만한 의역이거나, 독자를 배려한 의역입니다.

특히 이덕하 선생님의 지적에서 아쉬운 점은 독자를 배려하여 의역한 것을—제가 무릎을 친 번역도 있었습니다—원문의 자구에 매달려 오역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안진환 선생님의 다른 책을 읽지 않아서 번역 수준을 알지는 못하지만 위 글로 판단컨대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분으로 생각합니다.

위의 사례들을 보면 비평자의 태도나 비평 내용에 대해 각종 온라인 서점 서평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차적인 토론과 계속되는 의견 제시, 반박이 이어지고 있어 자칫하면 번역가 한사람에 대한 우월감에 찬 지적이나 인신공격에 머물 수 있는 독자 비평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오역잡기, 인신공격 등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독자비평 현상에서 긍정적인 발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오가면서 한 사람의 독단적인 의견이 반격을 받거나 새로운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는 과정에서 독자들 스스로의 학습 효과도 무척 크다고 본다. 특히 번역을 하거나 지식을 갖추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독자들이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한다면 일반 독자들의 번역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역할도 크게 할 수 있으리라 본다.

5. 결론

본 저자는 최근 다수의 메가 베스트셀러 번역본들이 일반 독자 비평가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과 리콜, 사과문 발표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에서 독자 비평의 실태와 수준, 한계와 가능성을 알아보려 했다. 독자 번역비평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란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학자들은 연구 논문이나 저서, 잡지, 책자 등 출판물을 통해 번역 비평을 했다. 번역가를 포함하여 전문가라도 학계나 제도권에서 활동하지 않는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場)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각종 SNS상에서는 이제 누구나 쉽게 비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과 통신이라는 공론의 장은 누구에게나 열린 토론의 공간이며 전파력이 폭발적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예전보다 매우 큰

권한이 부여된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가장 눈에 띄는 의의는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를 근간으로 하는 독자비평의 새로운 장이 열리면서 오역, 줄역, 표절, 대역, 번역가의 열악한 작업 환경 등 번역계의 많은 문제와 병폐가 조명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이 분야에 개선의 여지를 높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독자들이 가장 흔하게 비평하는 부분이 원문 이해 부족과 교정 교열 작업이라는 점은 아직은 그 한계일 수밖에 없으나 번역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할 원문 이해가 부족한 경우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적절한 교정, 교열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부실한 텍스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자들의 비평이 철저한 자성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진다면 번역과 출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를 통해 분석한 독자 번역의 가장 큰 잠재력은 그것이 다층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온라인상 독자비평은 소수 혹은 다수의 독자들이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 분석한 후 오역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안번역과 설명을 제시하는 1단계와 처음 비평한 독자에 대한 다른 독자들의 토론이라는 2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처음 의견을 제시하는 독자들은 지식, 관심, 의욕 등 모든 면에서 일반 독자들보다 수준이 높다. 이에 대해 반박이나 지지를 하는 독자들도 의견에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독자는 지식층, 번역가 등 더 전문적인 수준의 독자들이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1인의 비판이 아무 통제 없이 행해지는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독자들이 끊임 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비평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토론을 하는 가운데 서로의 비평 내용에 관한 것뿐 아니라 비평 방법이나 예절에 대한 논의가 많다는 점도 독자비평의 긍정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다 단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번역이나 상세한 언어적 문화적 설명이 추가되는 현상이나 구체적으로 언어적 측면, 문화적 측면 등 범주를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비평하는 경향의 증가, 그리고 오역잡기를 벗어나 한국 번역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¹⁰⁾가 일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독자비평이 더욱 발전

10) 다음 아고라에 오른 이덕하 비평가의 한국 번역계에 대한 의견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9&articleId=664910>

제가 보기에는 한국 번역계는 너무 한심해서 자정 노력으로는 어렵도 없습니다. “외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독자 비평가 시대의 도래와 함께 번역의 품질에 대한 관심은 늘었으나 문제점도 나타난다. 가장 큰 문제는 비평이 “번역가”의 지위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공개적으로 번역가를 비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이나 기준과는 관계없이 한 번 비난 의견이 나오면 반박의견이 있더라도 번역가는 그로인해 지나치게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발표되는 의견의 경우 특성상 직접 대면을 하는 경우나 지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우와 비교해 번역가에 대한 차분하고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주관적이고 감정이 실린 비평이 많으며 인신 공격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있다. 단순히 실수하거나 생략된 부분을 찾아내어 지적하는 것으로 비판자가 번역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번역가는 무능한 것으로 몰아 부친다면 자칫 감정싸움으로 변질 수도 있다. 실제로 번역에 대한 공격과 대응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예도 있다. 문학비평의 경우 작품 감상의 측면에서 비평을 하는 반면 번역 비평의 경우는 번역가의 자질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결합이 되면 번역가로서는 견딜 수 없는 수모나 명예훼손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이 빚어진다. 이는 번역가나 번역계 전체의 개선이나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 비평을 하더라도 객관적인 태

부”로부터의 강력한 충격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번역 비판이 가장 강력한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 번역 내부 고발이 있다면 좋겠지만 내부 고발이 대규모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반면 번역 비판은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전기의 오역 논란을 계기로 더 많은 번역 비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독자에게 “우리 출판사에서 독점 번역한 책의 번역이 엉터리라고? 그래서 어쩔 건데? 억울하면 원서를 사서 보시지”라고 말하는 듯한 출판사의 그간 행태가 이 일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무서운 줄을 알아야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합니다. 출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가 수많은 오역이 있어도 참기만 하고 있으면 출판사는 계속 “배 썰라” 전략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약 50권의 번역서의 번역을 비판한 제 글들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번역 비판 작업에 동참해 주십시오.

도로 예의를 갖추고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자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도 기꺼이 수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독자비평가 자신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다. 둘째는 “번역작”의 위치에 관한 것이다. 독자들은 원작은 주인이고, 번역작은 원문의 모든 단어를 충실히 담고 있는 종속적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서 그들의 번역 비판은 거시적인 측면보다는 문장대 문장 비교를 통해 오역을 잡아내는 수준에 머물렀다. 짧은 번역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번역학자들은 충실성과 등가성 위주의 번역 비평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독자 비평가들의 등장으로 다시 번역비평에 대한 인식이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문제제기에 반박하는 독자들의 의견도 거세기 때문에 더 원활한 의견 교환을 통해 그 과정 내에서 비평의 방향이 체계적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종합해보면, 독자들의 번역 비평이 학자들이나 전문 번역비평가들과 가장 다른 점은 텍스트를 분석하는 단위¹¹⁾, 목적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번역 비평시 상대를 존중하며 이성적, 객관적인 틀을 유지하는 태도 등이다. 이와 같이 독자들이 비평은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장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평에 있어 이론적인 접근을 하기 어려운 독자들이 텍스트를 전반적, 거시적 수준에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토론의 장인 인터넷 세상이 도래

11) 다음은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중 호밀밭의 파수꾼 번역 비평 부분이다.

단락 구분, 비속어 사용, 문체, 시제 등 독자번역에서 나타난 것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부분이 많았다.

1. 단락구분: 윌용성과 이덕형 역본의 경우 문단과 문장의 임의적 구분이 문제다. 원문과도 상관없고 단락 구분의 원칙이나 기준과도 무관하게, 그저 읽기 편하게 만든다는 목적 하나로 모든 단락을 매우 짧게 끊어 놓았으며, 내용상 나누어서는 곤란한 대목까지 임의로 끊어놓은 경우도 많다. 문장도 긴 문장을 임의로 몇 개로 나누어서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225).

2. 비속어 번역: 현암사 본의 미덕은 원작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속어와 비어의 적절한 번역에 많은 공을 들인 점이다(225).

3. 문체: 특히 이 작품의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길게 연결하면서 서술하는 주인공 홀든의 내적 독백의 어감을 전달하는 것이 번역의 정확성만큼이나 중요한데 단지 가독성만을 높이기 위해 이런 작품의 고유한 서술방식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이다(227).

했다는 점, 이에 따라 독자들도 번역작품에 대해 스스로의 의견을 개진하며 출판문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학계에서 이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필요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결국 잡스 전기를 둘러싼 논란과 같은 현상은 앞으로 훨씬 더 거세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점점 더 전문화 되며 블로그, 페이스북, 출판사 웹사이트, 온라인 서점 서평 그 이상으로 다양한 장에서 실시간 의견을 교환하고 여론을 주도해 갈 것이다. 이번 논란에서도 보듯이 번역출판사와 번역가 그리고 독자들 간의 논쟁에 학계의 참여나 지적, 새로운 비평에 대한 방향 제시는 거의 없었다. 학자들의 연구 영역과 독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서점 서평, 페이스북, 인터넷 블로그는 심리적, 물리적 거리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학자들도 블로그나 번역 관련 사이트 등의 운영을 통해 이론에 대한 정리나 비평에 대한 방향 제시에 나서야 할 시간이 되었다. 학자들의 연구와 비평이 행해지는 출판계보다 독자들의 비평이 행해지는 인터넷이나 SNS의 파급효과와 영향력은 훨씬 크며 앞으로 독자들의 활동은 더 왕성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시적, 기능적 입장에서 번역물을 비평하는 기준을 일반 독자들과 어떻게 공유하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창비, 경기도 파주시.
- 김순미 (2011) 「번역 텍스트와 한국어 원문 텍스트 속의 외래어 사용 비교연구-정보전달 텍스트를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2-4: 33-68.
- 김순영, 정희정 (2010) 「인터넷 기반 비전문가 자막번역(Fansubs)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고찰」, 『번역학 연구』 11-4: 76-97.
- 김영신 (2009) 「다빈치 코드 오역사례를 통한 출판번역 시장 문제」: 1-15.
- 이상빈 (2011) 「팬 번역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연구: 공정이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2-4: 119-143.
- 이상원 (2006)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평가 규범 연구』: 한국학술저보

(주), 경기도 파주시.

- _____ (2008) 「문학번역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번역학 연구』 9-2: 149-166.
- 전현주 (2006)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 번역 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7-2: 179-205.
- _____ (2008) 「번역 비평 텍스트의 패러다임」, 『번역학 연구』 9-1: 215-257.
- Chan, Leo-Tak-hung (2010) *Readers, Reading and Reception of Translated Fiction in Chinese*. Manchester UK: St. Jerome Publishing.
- Landers, Clifford (2001) *Literary Translation A Practical Guide*. Clevedon and New York: Multilingual Matters.
- Maier, Carol (1998) 'Reviewing and Criticism' in Mona Baker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Newmark, Peter (1998) *A Textbook of Translation*. Hemel Hempstead: Prentice Hall Europe.
- Nord, Christiane (2001)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UK: St. Jerome Publishing.
- Reiss, Katharina (2000) *Translation Criticism--The Potentials & Limitations Categories and Criteria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Manchester UK: St. Jerome Publishing.

[Abstract]

Readers' Role in Translation Criticism in the Internet Age

Kim, Soon-Mi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n increasing number of general readers of translated texts assume the role of translation critics in the internet age. The ascendancy of reader-critics was brought by the enhancement of cultural and linguistic capabilities of readers, an environment allowing an easy access to foreign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enabling people to easily distribute their opinions on the web. In this kind of social atmosphere, mega best sellers such as *Harry Potter*, *Da Vinci Code*, and *Steve Jobs* in Korea as well as in other Asian countries were criticized for their low quality of translation and the lack of proper editing by many reader-critics in the past decade. Comparing the source text and the target text, they catalogue mistakes and errors made by translators—judgements made only by scholars or professional critics in the past. This paper conducted a research on the critical comments posted on the web by translation readers. This kind of comparative criticism by readers has shortcomings as it considers the source text sacred while puts the target text in the lower and submissive position and berates translators as incompetent or ignorant. But, the expansion of readers' role has brought a new era where not just scholars, publishing companies, and policy makers but readers can affect how the translation is done.

▶ Key Words: The rise of readers, the age of Internet, translation criticism, comparative criticism

김순미

숙명여대 영문과 전임강사

smikim@sookmyung.or.kr

관심분야: 번역 교수법, 번역 비평, 번역과 이데올로기, 문학 번역

논문투고일: 2012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2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9일

부록1. 독자 비평에 대한 민음사의 공식 입장

(주)민음사에서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나 모두를 슬프게 했던 IT 업계의 혁신가 스티브 잡스의 공식 전기 『스티브 잡스』를 출간했습니다. (중략)

그런 한편으로 번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이에 공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스티브 잡스』의 한국어판과 영어판을 비교 대조하여 번역이 정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 미국 출판사에서 보내 준 원고와 영문판이 일치하지 않아 벌어진 문제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번역은 미국 출판사에서 한국을 포함하여 28개국에 7월부터 세 번에 걸쳐 전달해 준 번역용 공식 원고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스티브 잡스를 독점 인터뷰한 저자 월터 아이작슨의 공식 원고를 28개국에서 동시 번역, 동시 편집, 동시 출간한 셈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다른 해외 출판사에 원고를 전달한 이후 미국 출판사와 편집을 진행하면서 원래 전달한 원고와 미세하게 차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를 편집적 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28개국에서 출간한 책과 미국에서 출간한 영문판과 작은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스티브 잡스』 총 챕터의 수가 영문판은 42장까지이고, 나머지 28개국의 번역판은 41장까지입니다. 이것은 번역판에서 원고가 누락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20장 A Regular Guy」를 두 챕터로 나눠 편집했기 때문입니다. 번역판의 20장 A Regular Guy 를 똑같은 제목의 20장 A Regular Guy 와 「21장 Family Man」으로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상의 차이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스티브 잡스』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 덕분에 좀 더 반성하고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고쳐 나가겠습니다. 잠깐의 실수가 독자 여러분께 큰 실망감을 안겨 줌을 명심하고 한 치의 오류도 용납하지 않는 자세로 훌륭한 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cafe.naver.com/minumsa/189955>)

부록 2. 독자 오역 비평에 대한 번역가 안진환 씨의 공식 입장

먼저 저의 착각과 실수를 다수 바로 잡아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몇 가지 상황 설명을 드린 후엽 각각의 지적 사항에 대해 해명 혹은 변명을 붙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는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는 저자의 표현을 준용하면서 맥락에 중점을 두고 옮기는 게 나은 번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상 반복되거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은 종종 생략하기도 합니다. 역자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한 말인지 명확할 때, “he said” 같은 표현을 빼버리는 게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떤 작품인데 제가 불성실하게 임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편집부에서 Kindle판을 확인하고 난 후 어제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미국 출판사에서 출간 직전에 수정하거나 덧붙인 부분을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독자 분께서 보신 원서와 제가 작업한 원고가 약간 달라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는 애깁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량을 시간에 쫓기며 작업하다보니 의도치 않게 실수하거나 착각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완벽을 추구한 스티브 잡스에게 누를 끼쳐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 부분은 즉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판사에서 게시판을 열어 준다고 하니 그 게시판을 통해 독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며 옳은 지적은 곧바로 반영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10.27 안진환 드림

[출처] 『스티브 잡스』번역자 안진환입니다. (대한민국 출판의 힘, 민음사) |작성자 민음지기(<http://cafe.naver.com/minumsa/189956>)

부록 3. <잡스 전기 오역 논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출간된 지 일주일 만에 15만 부가 팔려나가며 서점가에 돌풍을 일으킨 전기 ‘스티브 잡스’(민음사 펴냄)가 오역 논란에도 시달리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번역 비평 등을 해오던 한 블로거가 지난 26일 잡스 전기의 한국어판과 영문판을 비교해 번역 오류를 지적한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이 블로거는 한국어판 번역에서 영문판에 있는 부사 표현 등이 누락되거나 ‘order’를 ‘질서’가 아닌 ‘주문’으로, ‘desktop’을 ‘책상’이 아닌 ‘데스크톱 컴퓨터’로 잘못 번역하는 등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음사는 곧바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미국 출판사에서 번역을 위해 보내준 원고와 영문판 원고가 일치하지 않아 벌어진 문제가 상당수”라며 “저자는 해외에 원고를 넘긴 후 미국 출판사와 편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차이에 대해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번역가 안진환 씨도 게시판을 통해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는 저자의 표현을 준용하면서 맥락에 중점을 두고 옮기는 게 더 나은 번역이라고 믿고 있다”며 “의도치 않게 실수하거나 착각한 부분은 즉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1/10/31/0901000000AKR20111031222800005.HT>
ML